



사진으로 보는

2015 추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체육대회

일시 : 2015년 10월 24일 (토)
장소 : 장자원가든 유원지 (경기도 양주시)

당일 새벽까지 비가 내려,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 화장한 날씨 속에서 2015 추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체육대회가 지난 10월 24일 토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장소도 변경하고, 산행과 족구 대신 레크리에이션 위주로 진행된 새로운 시도 속에 많은 연합회원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뽕뽕한 상품과 진행 준비물들



체육대회의 시작! 개회사 중인 연합회원들



체육대회 단체사진

내년에
또 만나요~



홀라후프 통과 릴레이 중



전략풍선 터트리기 게임 중



충격 흡수 우주인 축구 중



여왕을 지켜내는 불사조의 투혼!



애들도 지지 않는다!



오로지 힘이다! 번지런 게임

이후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의 개회사 선언 이후 체육대회는 예전 운동회처럼 청팀, 백팀으로 나누어 회원사 구분없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각팀 팀장을 뽑고 팀별 응원전을 통해 화합과 협동의 정신으로 복불복 퀴즈쇼, 주사위OX 퀴즈로 가볍게 몸을 풀며 시작된 체육대회는 여왕+불사조+스파이 미션피구와 빅발리볼로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갔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는 왕제기차기와 홀라후프 통과 릴레이, 전략풍선터트리기 후 각사 협회장 계주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 우승은 계주에서 역전을 한 백팀의 승리로, 졌지만 최선을 다한 청팀의 축하 속에 훈훈한 분위기로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두근두근 행운권 추첨과 폐회사를 마지막으로 웃음 속에 진행된 기술인연합회 체육대회 현장, 같이 보실까요?



제한된 시간 동안 팀의 색으로 많이 바꿔 놓는 경기!



체육대회의 마지막 경기, 각 팀의 릴레이 계주 시작



역전승을 한 백팀의 승리!



상대팀을 축하하는 멋진 연합회원들



시상자도 수상자도 한마음 한뜻으로



시상식 중인 이후삼 연합회장



행운권 1등 추첨의 주인공, 옥명근 아리랑국제방송 차장